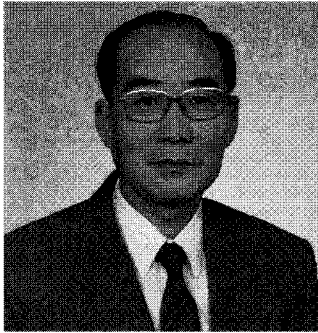


전기용품의 관리



나경수 편집위원장
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교육홍보부장)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경제방식을 통제경제(統制經濟)라 한다. 여기에는 생산·유통·가격·자금 등이 주로 통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경제 질서의 통제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통제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사실상의 작용을 통제강제(統制強制)라 한다. 이에 통제 하명(下命)을 강제하기 위한 강제집행과 통제상의 즉시강제(即時強制), 두가지가 있다.

따지고 보면, 통제(統制)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부분을 한 원리로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권력으로 언론이나 경제활동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것을 지칭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공권력의 발동이 전제되는 것이다.

규제(規制)란 규율을 세워서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사전에 작정해 놓은 어떤 표준 혹은 규칙을 의미하는 규정(規定)과 상통한다. 법적인 의미로 규정은 법령의 조문으로서 정해 놓은 것인데, 특히 그 조문을 지칭하게 된다. 이는 조례(條例)·규칙·규정(規程)과 달라 법령의 내용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규정(規定)은 철학에서는 한정(限定)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안전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회인에게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유지하고, 만일 발생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와 대책을 강구하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보통 이러한 안전관리(安全管理)는 산업안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도 우리 생활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직장회의 설치·안전주간에 의한 계몽·재해원인의 집합 및 그 분석 등을 통하여 재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안전교육(安全教育)이 필요하고 이를 생활해야 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재해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순발력 있는 능력의 발달을 도모하며, 안전확보에 필요한 지식·기능·태도의 육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1900년대에 들어와 공업화의 진전과 함께 선진유럽과 미국에서 착수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 교통사고·가정재해·화재 등에 대한 대책을 늘 강구하게 되었다. 또한 개별기능의 육성에만 그치지 않고, 인간생명존중의 정신적 함양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다.

전기용품은 대부분이 가정용 전기기기 제품으로 우리의 가정에서 남녀노소 구별없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이다. 이러한 가전제품(家電製品)은 거의 빈부의 차이없이 가정에서 전기에 대한 어떤 일정한 상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인 비전문가들이 항상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공장에서 출고시에는 안전도가 심분 확보 되어야 한다. 아니면 불특정다수인 일반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이 즉각 위협받게 된다.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가전제품은 다양화되고 집안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숫자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은 문명의 이기(利器)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삽시간에 흥기로 돌변하여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일순간에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계 각국에서는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 대중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 관계되는 법이나 규칙은, 이를테면 안전·환경 그리고 위생에 대해서는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적인 경향이다.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전, 위생 그리고 환경에 관한 것은 절대로 규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라는 말을 쓰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때문인 것이다.

이미 보아온 통제(control)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부분을 한 원리 밑으로 제약하는 것이고, 규제(regulate)는 규칙이나 법령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므로, 두 용어가 전기용품에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많은 소비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관리(管理)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전기용품은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규제가 아닌 “관리”라는 용어 사용이 바람직

관리(manage)는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와 개량 따위를 꾀하는 것, 일을 맡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 또는 건전한 심신의 유지나 성장을 꾀하는 것을 의미하니 말이다. 자기의 일상 건강을 관리하듯, 불법이나 불량 전기용품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치밀하게 관리하여 사전에 막아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한자성어

萬事休矣(만사휴의) 더 손쓸 수단도 없이 모든 것이 헛되이 됨을 지칭하는 말.

이 말은 「송사(宋史)」에 나오는 글로, 송대 고종희의 아들 고보육은 홀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였으므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를 미워하였다. 그러나 고보육은 자기를 노려보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를 옹호 주느라고 그러는 줄 알고 항상 방글방글 웃었다 한다. 그리하여 주위 사람들은 ‘萬事休矣’라 하면서 탄식하였다 한다.